

승수이론 (theory of multiplier)

경제현상에 있어서 어느 경제양이 다른 경제양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 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맨 처음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파급관계를 분석하고 최초의 경제양의 변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빚어낸 총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이론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총 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하며 어느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다른 모든 변수가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승수라고 한다. 이 승수이론은 케인즈 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의 하나로서 케인즈는 이 이론에 의해 투자가 파급효과를 통하여 결국은 같은 액수의 저축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쌀 직불금

정부가 쌀 지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 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하였다.

G20 (Group of 20)

G20이란 전 세계 19대 경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신흥 20개국이 다자간 금융협력력을 위해 결성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현황은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경제국(G7)과 한국, 중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경제국을 모두 아우르는 선진·신흥 20개국이다.

이들 G20국은 전 세계 총생산의 90%를, 국제 교역의 80%(EU 국가들 간 교역포함)를,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G20은 지난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회의가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들의 주도로 열린 이래 그간 연례 재무장관 회의만 개최해오다 2008년 11월 15일 처음으로 미 워싱턴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특정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축산물을 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절대량은 미국으로 이중 30~40%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다. 유전자 재조합기술은 1973년 미국의 과학자 코언과 보이어가 포도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미 농무부는 87년 이후 48종의 농산물 재배 실험에 들어가 94년 옥수수·콩·감자·호박·밀 등을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거쳐 상품화했다.

GMO는 생산성 및 품질이 우수해 전 세계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며, 병충해에 강해 농약, 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있지만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 항생

ADD증후군

제 내성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ADD는 After Downsizing Desertificat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구조조정 후 정신적 황폐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살아남은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불안, 우울감, 소외감과 적개심 등 정신적 장애를 의미한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억력·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적욕구가 감소하는 1단계 혼돈기, 감봉과 휴가반납 등을 통해 회사에 가급적 순응하는 2단계 적응기를 거쳐 실직의 공포가 사라지고 「매사 될 대로 되라」는 식의 3단계 황무지 상태로 진행된다.

1단계의 직장인은 회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2단계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고 감봉·휴가반납을 감수하는 등 조직에 더욱 잘 적응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해고되지 않으려고 인간함을 써온 자신에게 모멸감을 느껴 냉소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탄소캐시백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캐시백 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캐시백 제도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구입 시 포인트가 지급되어 향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나 수도·전기요금 결제 시, 정부 민원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탄소캐시백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제도와 비슷해, 참여기업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고 포인트 적립률은 상품판매가의 1~5%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